

# 2014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 • 국어 영역 •

#### 정답

1	5	2	4	3	3	4	5	5	2
6	3	7	5	8	5	9	2	10	3
11	1	12	3	13	3	14	4	15	4
16	5	17	3	18	1	19	4	20	2
21	5	22	2	23	3	24	4	25	1
26	1	27	4	28	2	29	2	30	1
31	2	32	4	33	4	34	5	35	2
36	1	37	3	38	2	39	5	40	1
41	4	42	5	43	1	44	2	45	4

#### 해설

#### 1. [출제의도] 말하기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

① 발표자는 자신의 희망 직업인 공정여행 기획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발표 전략으로는 도입 부분에서 ② 질문을 던지며, 전개 부분에서는 ③ 공정여행의 개념을 설명하고 ④ 공정여행 기획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 2.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부분을 보면, 공정여행은 현지와 현지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공정여행은 기존 해외여행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등장하였다. ②, ③ 공정여행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⑤ 공정여행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 [출제의도]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시청자의 인터뷰 내용은 이산화탄소 상쇄 상품을 판매하는 중개업체들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행자의 질문은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묻는 내용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④, ⑤ 인터뷰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② 대답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뷰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 4. [출제의도] 공감적 듣기의 방법 파악하기

㉞은 영미의 말을 요약·정리하면서 영미의 감정을 이해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영미)의 말을 평가하지 않으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 5. [출제의도]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A]는 문제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② 문제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하는 말이 아니다. ③, ⑤ 문제의 원인을 언니에게 돌리고 있다. ④ 문제의 원인을 영미와 언니 둘 다에게 돌리고 있다.

#### 6. [출제의도]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요약하기

원문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즉 현재 의사소통 매체의 특징을 선별하고, 유사한 내용(의사소통수단의 한계점 극복)을 압축하고, 원문의 문장을 자기 말로 바꿔 쓰는 등의 요약하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요약문에 원문의 흐름이 유지되었으므로 ③은 요약할 때 활용한 전략으로 볼 수 없다.

#### 7. [출제의도] 자료 활용하기

(가)~(지)처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나, (다)에서는 일반인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선입견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선입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가)~(지)에서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원인은 (나)처럼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

#### 8.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표현하기

탄탄한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구를 이루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④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구를 이루고 있지 않으며, ②, ③은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 9. [출제의도] 글쓰기의 주요 전략 파악하기

학생의 '과제 수행 기록'을 살펴보면, 학생이 쓴 초고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든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점, 원인, 요구 사항, 기대 효과'의 순으로 글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했다.

####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문장 내에서 ㉞의 앞부분을 보면 '점심 시간 10분 연장을 요구'하고 뒷부분에서도 '가사실 개방을 요구'하여 대등한 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래서'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또, 또한'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건의문은 건의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하므로 학생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예상 독자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⑤ 학습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구성'보다는 '무엇을 만들어 이룬다'라는 뜻을 가진 '조성'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1. [출제의도] 받침의 발음 이해하기

받침으로 끝나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을 만났을 때 받침의 발음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웃 안'의 경우 뒷말 '안'이 명사로 실질 형태소이므로 앞말 '웃'의 받침 'ㅍ'이 대표음 'ㄷ'으로 바뀐 후 뒷말 첫 소리에 이어져 [오단]으로 발음된다. '술 위'의 경우도 뒷말 '위'가 실질 형태소이므로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앞말 '술'의 받침 'ㄹ'이 대표음 'ㄴ'으로 바뀌고, 이것이 다시 뒷말 첫소리에 이어져 [수뵤]로 발음되는 것이다.

#### 12. [출제의도] 조사의 특징 파악하기

ㄱ은 앞말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격조사, ㄴ은 두 말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 조사, ㄷ은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의 예이다. ㄷ은 체언(꽃)과 용언(예쁘게), 부사(천천히) 뒤에 쓰인 예이고, ㄴ은 '이', '생략', '만 +으로+도'의 형태로 이루어진 예이다. ③ '만'은 '한정', '도'는 '더함'의 뜻을 앞말에 더해 주는 보조사로 앞말의 품사는 바꾸지 않는다.

#### 13. [출제의도] 한글맞춤법의 원리 이해하기

ㄱ의 '거리'와 ㄴ의 '너머'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이고, ㄱ의 '줄하다'와 ㄴ의 '넘어', ㄷ의 '임-'은 어법에 맞도록 쓴 예이다.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것은 곧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쓰는 것으로, 뜻을 파악

하는 것이 쉽고 독서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 '너머'는 어원상으로는 '넘다'에서 나온 명사이지만 현재는 어원에서 떨어져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4. [출제의도] 문장의 필수성분 파악하기

해당 문장의 서술어 '돌려주었다'는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 주어(철수는), 목적어(책울), 필수 부사어(민규에게)를 필요로 한다. '어제는' 생략할 수 있는 부사어이다.

#### 15. [출제의도] 사건의 자료 활용하기

④의 예문은 타다<sup>2</sup>-㉞의 예이므로 틀린 진술이다. [오답풀이] ① 타다<sup>1</sup>과 타다<sup>2</sup>는 둘 다 들 이상의 의미를 가지므로 다의어이다. ② 타다<sup>1</sup>과 타다<sup>2</sup>는 서로 다른 표제어로 실려 있고 의미상 관련이 없으며 단지 소리만 같으므로 동음이의의 관계이다. ③ 타다<sup>1</sup>-㉞과 타다<sup>2</sup>는 둘 다 [...]이라 표시되어 있으므로 목적어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⑤ 타다<sup>2</sup>-㉞은 '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반의어로는 '주다'가 가능하다.

#### [16~18] 인문 제재

#### <출전> 최진기, 「동양 고전의 바다에 빠져라」

개관: 이 글은 한비자의 통치 철학인 '법(法)', '세(勢)', '술(術)'을 설명하는 글이다. '법'이란 군주가 신하를 포함한 백성을 통제하는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규칙으로, 형법적 측면이 강하며 군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신하가 집행한다. '법'은 '세'를 바탕으로, 군주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세'란 군주라는 자리가 가진 절대적 권위를 의미한다. '술'이란 군주가 신하들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평소 신하들의 언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군주의 가슴속에 넣어두고 활용하는 것이다. 군주의 '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하들이 군주의 '술'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비자의 이러한 통치 철학은 스승인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이 변할 리가 없다며 '교화 가능성'을 부정했다. 유가 사상이 도입된 이후에도 한비자의 법치주의의 영향은 지속되어, 한비자의 사상은 중국의 통일 왕조에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 16.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하기

4문단에 전국시대처럼 각국이 전쟁을 일삼으며 각축을 벌이던 시절에는 '법(法)', '세(勢)', '술(術)'로써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이 필요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전국시대 말 진나라는 한나라를 공격했는데 이로 인해 한나라가 겪어야 했던 상황은 매우 비참했다고 제시되어 있다. ② 1문단에 한비자는 전국시대 국가들 사이의 세력 균형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통일에 의한 평화를 기대했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는 하나의 강력한 국가가 탄생한다면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강력한 국가가 되려면 강력한 전체 군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제시되어 있다. ③ 1문단에 한비자는 전체 군주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法)', '세(勢)', '술(術)'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제시되어 있다. ④ 4문단에 유가 사상이 도입된 이후에도 한비자의 법치주의의 영향은 지속되어 중국의 통일 왕조에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제시되어 있다.

#### 17. [출제의도] 세부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 한비자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순자와 동일하게 생각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할 리가 없다

며 '교화 가능성'을 부정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⑤ 3문단에 의하면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 있는 사사로움을 찾아내어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 ④ 3문단에서 한비자의 이러한 통치 철학은 스승인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지만 생각할 수 있는 '려(慮)'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그래서 '예(禮)'를 주입하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치(禮治)를 주장했다.

**18.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2문단에 '법'이란 군주가 신하를 포함한 백성을 통제하는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규칙으로, 형법적 측면이 강하며 군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신하가 집행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법'은 '세'를 바탕으로, 군주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예의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고 이는 <보기>의 '제갈량의 결정은 엄격한 군율이 살아 있음을 전군에 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21] 과학 제제**

**<출전> 서인호, 「화학 스페셜」**

개관: 이 글은 18세기 이후 화학자들의 주요 관심 분야 중 하나였던 화학적 친화력에 대한 연구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화학적 친화력은 물질 간에 더 잘 결합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18세기 베리만은 친화력표를 작성하여 친화력의 규칙을 찾으려 했지만, 힘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 19세기 원자론의 영향을 받은 베르셀리우스는 친화력을 (+)와 (-) 전하를 가진 물질 간의 전기적 인력으로 설명을 했지만 같은 전하를 가진 원소끼리 결합하는 것은 설명하지 못했다. 20세기 들어 원자의 구조가 밝혀지면서 베르셀리우스가 설명하지 못했던 결합들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는 화학적 친화력을 원자들이 안정된 상태가 되려는 경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화학적 친화력에 대한 화학자들의 연구 과정을 밝히고 있다. 화학적 친화력에 대해 18세기 베리만의 연구 방법, 19세기 베르셀리우스의 연구 방법, 20세기 화학의 관점을 시대순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답풀이] ② 중심 화제인 '화학적 친화력'의 장단점을 대비한 것은 아니다. ③은 일정 기준에 따라 범주를 나눈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20. [출제의도] 내용 적용하기**

실험 1에서 산화철과 칼륨을 반응시켜 산화칼륨이 생성되었다는 것은 산소에 대한 친화력이 철보다 칼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 2에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산소에 대한 친화력은 철이 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가)는 Na와 Cl이 이온화된 뒤 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하는 이온 결합을 보여 주는 예이다. (나)는 최외각에 전자가 하나 모자라는 Cl 원자가 다른 Cl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면서 최외각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가)에서는 Cl이 전자를 얻는 결합을 하는 것이 맞지만, (나)에서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에서는 이온결리의 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므로 화학 결합이 전자를 얻는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Na가 최외각 전자를 버리고 이온화되는 것은 4문단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이온과 (-)이온이 결합하는 것과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진 원소끼리 결합한다는 베르셀리우스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③ 베르셀리우스는 서로 다른 전기

적 성질을 가진 원소끼리 결합한다고 하였으나 (나)는 같은 성질을 가진 원소끼리 결합하는 것을 보여 주므로 베르셀리우스가 설명하지 못한 결합을 설명할 수 있다. ④ (나)는 공유 결합을 보여 주므로 4문단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22~24] 사회 제제**

**<출전> 김철환, 「소득 효과와 열등제」**

개관: 이 글은 수요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정상제와 열등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정상제, 열등제와 수요의 소득탄력성과의 관계를 제시하면서 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는 여러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수요의 변화는 소비자의 소득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제라고 한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있는데 이를 열등제라고 한다. 정상제와 열등제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정상제와 열등제는 가격이나 선호도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만 변했을 때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특정 재화를 명확하게 정상제나 열등제로 구별하기는 어렵다. 수요의 변화는 재화의 가격뿐만 아니라 그 재화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다른 재화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취향, 장래에 대한 예상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22.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 글에서는 사치재와 필수재의 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 정상제이면서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즉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사치재라고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③ 수요의 변화는 재화의 가격뿐만 아니라 그 재화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다른 재화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취향, 장래에 대한 예상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④ 2문단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제라고 하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있고 이를 열등제라고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⑤ 1문단에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수요량이 변하는 현상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23.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3문단에 의하면 정상제와 열등제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란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말한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수인 재화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하므로 정상제이다. 반대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음수인 재화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므로 열등제이다. 정상제이면서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즉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사치재라고 한다. 반면에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재화를 필수재라고 한다. 이 내용을 <보기>에 적용을 하면 ㉓는 사치재, ㉔는 정상제, ㉕필수재, ㉖는 열등제인 것을 알 수 있다. ㉗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재화이다.

**2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의 '같은 지하철 요금인 1,000원이고 한 달 용돈이 20,000원일 때 지하철을 20번 탔고 용돈이 40,000원일 때 40번 탔다. 그런데 이번 달에 20,000원의 용돈을 받았지만 지하철 요금이 500원으로 내려서 40번 탈 수 있게 되었다'는 지하철 요금의 인하가 학생의 소득(용돈)이 증가했을 때와 같은 효과를

유발하는 것을 보여 준다. 2문단에 소비자의 소득 변화는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증가해서 한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 이를 추론하면 한 재화의 가격이 인하되면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므로, 한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있는데 이를 열등제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②, ⑤ 4문단에 수요의 변화는 재화의 가격뿐만 아니라 그 재화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다른 재화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취향, 장래에 대한 예상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보기>는 재화의 가격이 인하여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③ 3문단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말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보기>에서 지하철 요금이 500원으로 내려서 한 달에 40번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된 것이 지하철 요금이 1,000원일 때 용돈이 4만원으로 오른 것과 같다면 지하철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인 재화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변하지 않았다.

**[25~27] 예술 제제**

**<출전> 이주현, 「지식의 미술관」**

개관: 이 글은 미술에서 사용되는 알레고리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알레고리는 상징을 통해 어떠한 현상이나 상황,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법인데, 상징은 연상이나 유사성 등의 상관관계에 기대어 추상적 사물이나 개념 따위를 구체적 형상으로 나타내는 일을 의미하므로 알레고리는 이중 메시지를 가진다. 알레고리가 정지된 형상을 통해 드러나는 미술에서는 알레고리를 통해 추상적 개념이나 교훈, 도덕적 가치 등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 18세기 러시아의 그림 「정의의 여신의 신전에 선 임업자」에서도 여러 상징들이 동원되어 여제가 가진 덕성을 표현하고 있다. 현대에는 알레고리를 가진 미술 작품이 많이 제작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현대 미술가들이 교훈이나 도덕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이며 또한 추상회화에서는 구체적 형상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25. [출제의도] 집필 의도 파악하기**

이 글은 미술에서 사용되는 알레고리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알레고리의 정의와 표현 방법, 알레고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설명하고, 알레고리가 나타나는 그림을 예로 들어 설명을 구체화하고, 현대 미술 경향과 알레고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26.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알레고리가 나타나는 그림의 감상은 그림에 나타나는 소재들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러한 상징성들의 조합을 통해 드러나는 추상적 개념이나 인간 삶에 대한 교훈, 도덕적 가치를 찾아보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 작품의 구도를 감상하는 것은 알레고리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통해 알레고리의 특징인 이중메시지 구조를 알 수는 없다.

**27. [출제의도] 독서 전략의 적절성 파악하기**

㉡ 앞의 문장은 그림에 나타나는 소재를 제시하고 있다. '㉢ 이를 통해'는 앞의 내용을 받아서 그 내용의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을 통해 앞의 주장이 강조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 앞에서는 문학에 적용된 알레고리를 설명하고 있고, ㉢ 뒤에서는 미술에 적용된 알레고리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 뒤에는 새로운 내용이 서술되었다.

**[28-30] 기술 제제**

**<출전> 주영장, 「M램」**

개관: 이 글은 D램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 장치로 주목받고 있는 M램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M램은 자성 물질 사이에 절연체를 집합한 구조로, 자성 물질의 자기장 방향에 따라 저항이 달라지는 성질을 이용해 0과 1의 데이터를 기록한다. 자성 물질의 자기장 방향은 전기 충격을 가해 주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D램처럼 전력을 계속 공급해 줄 필요가 없으며,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M램이 상용화된면 모바일 기기의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도 크게 변할 수 있다.

**28. [출제의도] 세부정보 파악하기**

이 글에서는 자성 물질의 자기장이 강할수록 성능이 우수해진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4문단에서 M램은 고도로 집적했을 때 인접한 자성 물질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볼 때 자기장의 강도가 우수한 성능과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③은 2문단의 전류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 0, 강할 때 1로 읽는다는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⑤는 D램이 전기장의 영향을 받으면 1의 값을 가지고, 전기를 가해 주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므로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1문단의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9. [출제의도] 구체적 사제에 적용하기**

현재 M램의 자기장 방향은 아래위가 반대 방향이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큰 저항이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약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약한 전류가 흐를 때는 0으로 읽는다고 하였으므로 현재는 0의 값을 가지고 있다.

[오답풀이] ③ ⑥는 절연체로 원래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만 M램에서는 절연막이 매우 얇아 전류가 통과할 수 있다. ④ 자성 물질의 자기장 방향은 전기를 가해 주지 않아도 생기는 것이다. ⑤ 쓰기 작업을 하려면 한쪽 자성 물질의 자기장 방향을 고정하고 다른 한쪽만 변화시켜야 한다.

**30. [출제의도] 핵심 내용 파악하기**

M램은 기존의 D램이 가진 문제점, 즉 전력 소모가 많고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제조 공정의 개선과 새로운 자성 물질의 개발이 필요하다. M램의 제조 비용이 저렴하다는 내용은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31~33] 현대 시 제제**

**(가) <출전> 서정주, 「무등을 보며」**

개관: 이 작품은 시인이 6·25 동란 후 광주에 기거할 당시 물질적인 궁핍 속에서 의거하고 변함없는 무등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은 시이다. 작품에서 산은 의인화된 형상으로 나타난다. 산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 등성을 드러내거나 기슭에서 지란을 기르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화자는 이러한 산을 마주하면서 '목숨이 농을쳐 휘어드는' 현실에서도 가족간의 믿음과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하며, '가시덤불 속구렁'과 같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옥들'처럼 문혔다고 생각하는 여유 있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노래하고 있다.

**(나) <출전> 김사인, 「지상의 방 한 칸-박영한 님의 제(題)를 빌어」**

개관: 이 시는 몸을 기댄 방 한 칸을 얻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화자는 자기가 매달리는 원고지를 채우지 못해

탄식하며 스스로를 변변치 못한 아비라 여기면서도,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어린애와 고단한 몸으로 잠든 아내를 향해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특히 '초라한 몸 기댄 방 한 칸이 / 땅방천지에 없던 말이냐'라는 애절한 하소연 속에는 스스로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과 함께 삶의 근절적 비극성에 대한 깊은 탄식이 우러나오고 있다.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4행의 '~ 기댄 수가 있으랴'에서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가릴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나)에서는 7행의 '~ 평화로운가', 14행의 '~ 없던 말이냐'라는 설의적 표현에서 각각 아이의 순결함과 방 한 칸 가지지 못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사물에 인격을 부여한 것은 (가)에 나타나지만 대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지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색채어는 (가)의 '갈매빛', '청산', '청태'에서 볼 수 있다. ④ (가), (나) 모두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긴박감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처음과 끝에 동일한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나)에만 해당된다.

**32.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청태'는 '가시덤불 속구렁'과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옥들'같이 고결한 정신을 지니고 살아가며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청태'는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와 관련되므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갈매빛'의 질은 초록빛은 생명력을 드러낸다. ② 초라한 옷을 의미하는 '남루'가 대단할 것 없다는 뜻의 '한낱'과 연결되면서 가난이 별 것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③ '농을쳐 휘어드는 / 오후의 때'는 삶의 기운이 꺾이는 시간이다. 이러한 대화자는 내외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 ⑤ 화자는 힘든 현실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무등산의 모습을 보며 현실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33.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하기**

'운명의 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은 화자가 원고지 칸들을 채우는 일, 즉 글 쓰는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처지를 태생적으로 주어진 운명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에서 화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심신이 편하지 못한 상태와 관련이 있다. ② ㉠ 어린 자식의 손끝이 닿을 때 느끼는 가장으로서의 자괴감이 무게감으로 표현되었다. ③ ㉡ '원고지를 메꾸 밥 비는 재주'는 화자의 직업이 글 쓰는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⑤ ㉢ 화자는 살아갈 거처를 잃어버릴 처지에 있으며 이로 인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4~37] 고전 소설 제제**

**<출전> 작자 미상, 「춘향전」**

개관: 이 작품은 퇴계의 딸로 태어난 춘향과 양반집 자제인 이 도령의 신분적 한계를 뛰어 넘은 사랑을 다룬 판소리게 소설이다. 이 소설은 조선 후기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분 차별에 대한 불만, 관리의 횡포 풍자 등 다양한 주제 의식을 내포하고 있어 국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작품이다.

**34. [출제의도] 내용 파악하기**

도련님은 어머니께 꾸중을 들은 후 더 이상 춘향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고 서울로 떠나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35.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제시된 부분에는 '필렁, 부글부글, 닭속, 벌렁벌렁, 뽀드득, 탕탕' 등 다양한 음성상징어가 나타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물의 행위를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36. [출제의도] 작중 인물 파악하기**

㉠은 춘향이 당대의 사회 현실 및 그로 인한 신분의 차이를 자각하고 보인 반응이므로 현실을 비판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에서 춘향은 도련님의 침이 되어도 좋다고 하고 있으므로 춘향의 욕망을 확인할 수 없다. ㉢에서 도련님이 춘향과의 신분 차이에 따른 문제 때문에 이별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춘향의 욕망이 달성되기 어려운 이유를 알 수 있다. ㉣에서 춘향이 보이는 격렬한 반응은 욕망의 좌절에 따른 감정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 춘향이 존귀권이 원수라고 한 것을 보면 신분상의 문제가 춘향의 욕망을 좌절시킨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37. [출제의도] 한자 성어 파악하기**

㉡에서 춘향은 도련님이 굳게 약속한 것을 어기고 자신을 버린다고 하고 있기에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의미의 '일구어언'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④ 정지지와: 우물안 개구리처럼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천생연분: 하늘이 정하여 준 연분을 이르는 말.

**[38~39] 고전 시가 제제**

**<출전> 이현보, 「어부단가」**

개관: 이 작품은 고려 때부터 전하여 오던 '어부가'를 작가가 개작한 것이다. 자연을 벗하며 고기잡이 하는 풍류객으로서의 어부의 생활을 그린 이 작품은 자연 공간을 지향하고 속세를 멀리 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어부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38.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만경과', '천심복수', '만철청산', '어주'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자연 공간과 '인세', '심장홍진', '장안', '복궐'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속세가 대비되어 있다.

**39.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화자는 '제세현이 없으랴'라고 하며 자신의 근심을 대신 해결해 줄 제세현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근심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일일편주 위에서 시름없는 어부의 삶을 누리고 있다. ② 만경과는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라는 뜻으로, 화자가 어부로서의 삶을 영위해 가는 드넓은 공간이다. ③ 화자는 만철청산이 심장홍진을 가려 준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④ 화자는 강호에 율백하면 속세에 전혀 관심이 없는 무심한 경지에 이른다고 하고 있다.

**[40~42] 현대 소설 제제**

**<출전> 최일남, 「너무 큰 나무」**

개관: 식모인 '나'의 시선을 빌려 사회와 가정에서의 행동이 일치 하지 않는 아저씨를 관찰하는 시점으로 서술된 소설이다. 주인공 아저씨는 사회적으로 김 박사로 알려져 있으며 텔레비전에도 출연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유명 인사이다. 그런데 '나'의 눈에 의해 아저씨의 실상, 즉 집 밖에서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인물로 행세하지만 집 안에서는 책을 거의 읽지 않거나 남을 대할 때와 달리 '나'에게 인식

한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나'는 이러한 '아저씨'의 모습에 대해 '아 모르겠다'라고 하며 혼란을 느끼지만, 독자는 '나'의 서술을 통하여 일종의 가면을 쓰고 양식 있는 인물인 양 행세하는 표리부동한 지식인의 이중성을 보여주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

**40.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나'가 '아저씨'에 대해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일화도 제시하면서 '아저씨'의 인물됨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③ 대화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물의 성격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⑤ 각각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41. [출제의도] 인물과 독자의 관계 파악하기**

'나'는 나무의 '밑둥'에서 '나무의 꼭대기'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저씨를 곁에서 지켜보며 아저씨의 정체에 대한 판단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독자는 '나'의 서술을 토대로 아저씨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나'는 가까이에서 아저씨의 '헬렌레한 구석'을 목격한다. 이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아저씨의 존경스러운 면과 상반된 것으로, 아름다운 '천방산'의 모습과 대비되는 '뿔뿔산'의 보잘 것 없는 모습과 관련된다. ③ '아저씨'는 '큰 나무'에 비유되고 있다. 따라서 '나무의 꼭대기'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아저씨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42.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아저씨는 기자에게 하룻밤에 명작소설을 다 읽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책을 잡는 일이 거의 없는 인물이다. 따라서 거짓을 진실인 양 꾸미는 허위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아저씨'는 독서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② 명작소설은 '아저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 이어지는 '나'의 진술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난다.

**[43~45] 회곡**

**<출전> 유진오, 「박첨지」**

개관: 1932년에 단막극으로 공연된 이 작품은 고리대금업자 김영철과 빈농의 전형인 박첨지 일가의 대립을 기본 구조로 설정하여 가난과 빛 독촉에 내몰린 1930년대 농촌의 암울한 현실과 궁핍한 농민의 삶을 그리고 있다. 빛 탕감을 조건으로 박첨지의 딸 입분이를 요구하고 빚을 내세우며 박첨지를 협박하는 김영철의 모습을 통해 궁핍한 농민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리는 악덕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와 당대 농촌 현실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작가의 문제 의식이 드러나 있다.

**43.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김영철은 박첨지에게 빛 탕감을 조건으로 입분이를 달라고 요구하고 박첨지가 이에 응하지 않자 박첨지를 유향시킨다. 이를 보다 못한 입분이가 김영철을 따라가겠다고 나서면서 말을 지키려던 박첨지의 의지는 좌절되고 만다. 예상치 못한 입분이의 행동으로 말을 잃게 된 박첨지와 김씨의 절망이 이어지면서 작품의 비극성이 고조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공간의 변화는 빛글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분위기의 반전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김씨의 마지막 대사를 독백으로 볼 수도 있었으나 이는 절망감의 표현이지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⑤ 빛글에서 시간의 역전이나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대사는 찾아볼 수 없다.

**44. [출제의도] 인물 파악하기**

㉠은 빛 탕감의 조건으로 입분이를 달라는 김영철의 요구에 박첨지가 응하지 않자 그를 회유하기 위한 행동이다.

[오답풀이] ① ㉠에서 김영철은 입분이를 데려가려는 본래의 목적을 숨기고 겉으로는 입분이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③ ㉡에서 박첨지가 김영철에게 집행을 해 가라고 말한 것은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을 빼앗기더라도 입분이를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④ ㉢에서 입분이가 서울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은 김영철의 요구에 응하여 가족을 김영철의 빛 독촉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에서 입분이가 문서를 찢어 버린 것은 문서를 근거로 더 이상 빛 독촉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김영철에게 명백히 확인시키는 것이며 김영철을 따라가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박첨지와 김씨에게 보여 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감상하기**

박첨지가 입분이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호통을 치는 것은 김영철을 따라가겠다는 입분이의 행동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을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의지가 김영철을 따라가겠다는 입분이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의해 좌절되면서 나타나는 행동이다.

[오답풀이] ① 김영철은 빚을 내세우며 빛 독촉을 함으로써 박첨지를 궁지로 몰아넣고 빛 탕감의 조건으로 입분이를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도 협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빚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수단이 되기도 했던 당시 세태를 엿볼 수 있다. ② 김영철이 빛 탕감의 조건으로 입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은 김영철이 박첨지에게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을 금전적 가치와 동일시하고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당시의 세태를 알 수 있다. ③ 김영철은 시골에서의 생활을 '씩는 것'이라고 말하며 입분이를 서울로 데려가 지금보다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시골에서의 삶과 서울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김영철이 빛 독촉을 하며 박첨지를 유향시키는 모습을 통해 당시 농민들이 처해 있던 경제적 어려움을 알 수 있다.